

최북단 명파리에서 의료봉사 활동

강릉아산병원 복지의료팀 지난 16일 ... 참빛동아리는 이미용봉사

명파초등학교 제48회 졸업식



명파초등학교(교장 전현철)는 지난 10일·기관·사회단체장 및 해군함작소 소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졸업식을 가졌다.

6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날 졸업식은 학교장 회고사와 재학생 송사, 졸업생 감사, 선생님의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히 선생님들이 불러준 축가가 진한 감동을 전해줬으며, 전교생의 축하 동영상은 참석자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6명의 졸업생 모두 대진중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다. 박선애 시민기자

본스치킨 거진점 장학금 전달



본스치킨 거진점 장공순 대표는 지난 15일 졸업식을 맞이한 거성초등학교와 대진초등학교 졸업생 4명에게 각각 십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원광연 기자



우리나라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해 의료혜택이 부족한 현내면 명파리(이장 김영복)에 반가운 사람들이 찾아왔다.

고성군보건소의 의뢰로 영동권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강릉아산병원 복지의료팀은 지난 16일 명파리 마을회관에서 오전 10시30분 오후 3시까지 이동병원을

운영했다.

5명으로 구성된 복지의료팀은 이날 X-ray 촬영, 혈액검사 등의 내과과목의 진료와 약 처방과 제조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고성군 이·미용사로 구성된 참빛동아리 회원 7명이 어르신들을



강릉아산병원 복지의료팀이 지난 16일 최북단 명파마을에서 이동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참빛동아리 회원들이 이미용봉사활동을 펼치는 모습.

대상으로 파마, 컷트 등 이·미용봉사활동을 펼쳐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원광연 기자

2월부터 구독자 정리작업을 실시합니다

1년간 월 구독료 4천원 1회도 납부하지 않은 구독자 정리

1인당 1년간 우편요금만 5,760원 ... 경로당·다문화 가정 등 무료배송은 그대로

고성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월 31일 창간한 고성신문이 어느덧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본지를 아껴주신 정기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간 2년차를 맞는 2012년부터는 그동안 일부 무료로 배달해 드린 신문을 모두 유료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문 1부가 여러분의 가정에 도착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인건비와 편집·인쇄비 등을 제외하고도, 1가정당 우편요금만 연간 5,760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신문 1부 가격인 4천원보다도 많은 가격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부터는 1년간 월 구독료를 단 1회도 납부하지 않으신 독자는 순차적으로 신문발송이 중단됩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만일 신문이 끊어진 뒤 다시 구독하고 싶은 경우는 별도로 정기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 납부 제외 독자님

- ◇칼럼위원 및 시민기자
- ◇1년 선금을 내주신 독자님
- ◇은행 자동이체 중인 독자님
- ◇교환지 형태로 받아보시는 독자님
- ◇독지가 기증 독자님
- ◇고성지역 경로당, 다문화 가정

주식회사 고성신문

신문구독 관련 문의 ☎033-681-1667